

중국산 부품 역수입, 고용·자동차 안전 위협 경주지부·발레오만도지회, 13일 기자회견 . . . “노조 파괴·먹튀 시도, 노동부 즉각 조사 나서야”

“제2의 발레오 사태를 원하는 것인가”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 아래 발레오전장) 노동자들이 발레오 자본의 노조 파괴·먹튀 시도와 뒷짐지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발레오만도지회는 13일 오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대책 마련으로 발레오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와 먹튀를 막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발레오전장 사측에는 부품 역수입 중단과 경주공장 정상 운영을 요구했다.

신시연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부가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발레오전장 사측의 노조파괴와 외투 먹튀 시도에 맞서 지난달부터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는데, 노동부는 전혀 급하지 않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조 발레오만도지회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경주 발레오전장 공장에 발레오에서 수입한 중국산 부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역수입, 흔히 바이백(BUY-BACK)이라고 부른다. 지회는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경주공장 생산량이 줄어들고 결국 노동자들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했다. 지회는 사측에 역수입 중단을 요구했다. 사측은 배짱을 부리며 더 많은 부품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도 수입량이 늘었다. 지회는 “심지어 사측은 해외 공장 부품을 경주공장에서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비용을 치르며 가져온다”라고 주장한다.

신시연 지회장은 발레오전장 경주공장 현재 상황을 단순히 부품 역수입 문제 정도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시연 지회장은 “수입할 필요 없는 해외 공장 부품을 심지어 비싼 값에 들여오는데 경주공장 수익성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2010년 직장폐쇄 때 이미 겪었던 현장을 파괴한 다음 먹튀하려는 발레오 자본의 속셈”이라고 단언했다.

발레오만도지회와 사측은 지난 4월 19일 2024년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단연코 올해 교섭의 최고 쟁점이자 화두는 경주공장 정상 운영. 해외 생산 제품을 반입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자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꿈쩍하지 않았다. 교섭은 공회전을 반복했다. 지회는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7월 10일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사측의 쟁의행위 방해가 포착됐다. 발레오전장 사측이 노동조합 단체행동을 무력화시키려고 비조합원들에게 심야·휴일 노동을 강요한다는 제보가 줄을 잇는다. 신시연 지회장은 “비조합원들 여름휴가 반납시키고 추가 수당까지 주면서 공장을 돌렸다”라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노노갈등 조장, 노동법·단체협약상 노동시간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신시연 지회장은 정부를 향해 제2의 발레오 사태를 원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 지회장은 노동부가 손 놓고 있는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발레오 자본을 방치하면 결국 외투 먹튀가 벌어질 것이라며 정부에 해외자본 먹튀 방지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부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정진홍 노조 경주지부장은 발레오 자본이 중국 공장에서 경주공장으로 가져오는 자동차 모터의 생산 이력을 추적할 수 없다며 “확인할 수 없는 부품들이 자동차에 들어가게 된다. 발레오전장 노동자들 일자리만 위태로운 게 아니라 자동차를 사고 타는 사람들의 안전도 위협받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홍 경주지부장은 “발레오 자본과 발레오전장 사측은 위험하고 불법적인 부품 역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발레오가 노동자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노동부가 방치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경주지부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경주지부와 발레오만도지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용노동부 포함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측의 파업 방해 문제를 비롯해 ▲부품 역수입 ▲비조합원 추가 수당 지급 ▲노동시간 기준 초과등 발레오 자본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2010년 2월 당시 발레오만도 사측은 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사측의 식당·경비 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직장폐쇄를 벌였다. 사측은 창조건설팅과 계약을 맺고 금속노조 파괴 전략을 짰다. 사측은 지회

조합원에 현장 복귀와 금속노조 탈퇴를 회유했다. 복귀자들을 중심으로 기업노조를 만들었다.

대법원은 2019년 7월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023년 7월 기업노조 조합원들은 조직 형태 변경을 통해 발레오 자본의 노조파괴 13년 만에 다시 금속노조로 돌아왔다.

